

# 경호 · 경비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의 활용



김 은 정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erving as a template for a signature or additional text.



## 경호·경비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의 활용

김 은 정\*

### 〈요 약〉

경호·경비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질적 연구의 동향과 다양한 기법들로 구분되는 유형들을 적용하였다. 기존 경호·경비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더욱이 질적 연구로 수행된 연구들도 의도대로 심층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통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질적 연구라고 취급할 정도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호·경비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연구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 사례조사 연구(Case Study Research)라는 다섯 가지 질적 연구의 유형을 제시한 Creswell(1998, 2007, 2013)의 이론을 접목하였다. 이를 통한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활용은 첫째, 경호·경비 현장의 목소리를 이론화한다는 점에서 산학이 공조된 현실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둘째, 경호·경비 업계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유발하고 셋째, 경호·경비와 관련된 제반 현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며 넷째, 경호·경비 분야의 실천적인 지식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찾게 된다. 급변하는 경호·경비 분야에서 학계는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심층적인 질적 연구의 활용을 통해 현장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조사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조교수, kej@yongin.ac.kr

목 차
-----

- |  |
|--|
| I. 서 론<br>II. 경호·경비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br>III. 경호·경비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적용<br>IV. 결 론 |
|--|

## I. 서 론

경호·경비 학문분야는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탐구과정을 거친 이론의 생성을 목적으로 삼는다. 탐구과정의 주축이 되는 것은 연구방법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갖춘 연구방법에 의해 다양한 이론들이 생산되며 이러한 지식들이 합쳐져서 어떤 분야의 학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시하게 되는 것이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호·경비 분야는 학문적인 성립뿐만 아니라, 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함께 존재하므로, 특히 연구방법의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본다. 이러한 경호·경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학계의 연구방법에서 비롯된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이 주로 나타난다.

문헌 연구는 문헌 자료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오랜 기간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문헌조사라는 명목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도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1차와 2차 자료의 원천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그 본연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양적 연구는 실증적인 관계성을 찾기 위해 관찰 및 실험으로 확인하는 정량적 분석 즉, 수학적 분석 방법이다. 다시 말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검증하는데 주된 초점을 둔다. 이남인(2005b: 168)은 양적 연구의

강세에 대해 물리학을 시작으로 한 대부분의 자연과학이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모범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심지어 인문학 및 사회과학도 사회공학, 교육공학 등의 자연과학을 표방하는 명칭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강세를 이어가던 양적 연구는 정량적으로나 수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 외의 고유한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제기에 봉착했고, 이런 추세에 힘입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경비의 연구방법론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질적 연구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경호·경비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논문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Creswell(1998, 2007, 2013)이 제시한 다섯 가지 질적 연구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적용하였다. 즉, 질적 연구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적 잘 구분한 Creswell의 질적 연구 유형들을 통해 경호·경비 분야에 접목하여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대다수의 질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들은 Creswell의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적 연구, 사례조사 연구로 구분된 다섯 가지 유형을 사용하거나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호·경비 학문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비활성화는 학계의 전반적인 편견이나 인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제라도 양(量)으로 환산 가능한 양적 연구와 더불어, 본질적인 속성을 따지는 질(質)로 내면을 다루는 질적 연구가 함께 균형을 이루길 바란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기 어렵듯이, 경호·경비 학문분야에서 질적 연구는 경호·경비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현상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폭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양적 연구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서로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연구방법이 맞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방법의 선택은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므로, 각각의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경호·경비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을 모색하자는데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II. 경호·경비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동향

북미권 질적 연구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유명한 Wolcott(1992)는 질적 연구의 공통분모로 참여관찰(Experiencing: participant observation), 심층면담(Enquiring: in-dept interview), 현지자료조사(Examining: field document/cultural artifact/native self-report analysis)라는 세 가지(3Es)를 언급하였다(조용환, 2012: 2-3, 재인용). 그는 질적 연구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중 하나에 치중하거나 또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충족된다고 여겼다. 유기웅 외(2012: 14-22)도 질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심층적 이해, 현장 활동, 귀납적 접근, 연구자의 역할, 연구주체의 성격’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물론 이 외의 다양한 연구자들도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기준은 관찰과 심층면담 그리고 현장 및 현지 조사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1. 경호·경비 연구방법의 유형

#### 1) 박사학위 논문

학문적인 관점에서 경호·경비 분야는 대학에 관련 학과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고등교육에서 경호·경비 분야의 학문적 접근은 1996년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경호학과로부터 시작되었고, 1998년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경호행정학 전공이 생기면서 차츰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 학과들은 학부를 넘어 석사와 박사 과정의 개설로 이어졌고, 전문적인 경호·경비 관련 연구자들을 배출시키면서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경비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연구방법의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박사학위 논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더불어 학교마다 나뉠대로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자의 차후 실질적인 연구 분야의 정착이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삼을 여지가 높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경호·경비 관련 학과 개설 이후에 취득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경호·경비를 주제로 삼은 박사학위 논문

총85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라는 네 가지로 연구 방법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한국학술정보원을 통해 제공된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제목에 ‘경호’와 ‘경비’가 포함된 논문을 검토했으며, 분류 기준은 논문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방법으로 기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표 1> 1996~2012년 경호·경비 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연도별 연구방법 유형

유형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비율)
	문헌 연구	0	0	0	1	1	0	1	0	1	2	0	0	2	2	2	4	
양적 연구	0	0	1	0	1	1	0	1	2	4	4	1	6	6	3	8	7	45편(52.9%)
질적 연구	0	0	0	0	0	0	0	0	1	1	1	0	2	3	2	0	1	11편(12.9%)
혼합 연구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2	1	5편(5.9%)
미 확인	0	0	0	1	0	0	0	0	0	1	0	0	0	3	2	0	0	7편(8.2%)
합 계	0	0	1	2	3	1	1	1	5	8	5	1	10	14	9	14	10	85편(100%)

경호·경비 관련 박사학위 논문에서 양적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질적 연구는 심층면담을 주로 활용했다. 총85편 중에서 저작권 보호에 의해 미확인(7편, 8.2%)한 논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문헌 연구 17편(20.0%), 양적 연구 45편(52.9%), 질적 연구 11편(12.9%), 혼합 연구 5편(5.8%)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방법 유형을 통해서 볼 때, 경호·경비 학문분야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헌 연구(17편, 20.0%)가 수치상으로 양적 연구 방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연도별로 지속되고 있다. 둘째, 박사학위 논문의 절반 이상이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45편, 52.9%)로 수행되었다. 다른 연구방법과 그 편차를 비교하였을 때, 단순한 수치상의 편중이 아닌 경호·경비 학계의 양적 연구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엿보게 된다. 셋째, 질적 연구(11편, 12.9%)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수행되었다. 양적 연구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연구 성과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질적 연구에 대한 선호 추세와는 큰 격차를 보인다.

## 2) 학술지 논문

경호 관련 학과의 등장과 함께 1996년 3월에 창립된 한국경호경비학회는 경호·경비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자리 잡았다. 1997년 10월 『경호경비연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6년 『경호경비연구』 제12호까지 발간 후, 2007년 제13호부터 『한국경호경비학회지』로 개칭되었다. 경호·경비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의 『경호경비연구(1997~2006)』와 『한국경호경비학회지(2007~2012)』에서 ‘경호’와 ‘경비’라는 제목이 들어간 총206편의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분류 기준은 연구자들이 연구방법으로 기재한 것을 적용하였고, 연구방법이 기재되지 않는 논문들도 내용을 확인하여 문헌 연구(기존 연구물의 검토 및 분석), 양적 연구(설문지 및 실험 내용을 통계 처리), 질적 연구(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 및 현지 조사), 기타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총206편은 문헌 연구 103편(50.0%), 양적 연구 86편(41.7%), 질적 연구 13편(6.3%), 기타 4편(1.9%)으로 나누었는데, 학술지 논문 역시 박사학위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질적 연구는 면담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 파악을 통해 경호·경비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학술지 논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문헌 연구(103편, 50.0%)로 수행되었다. 경호·경비의 학문적 토대를 확립하는 수순으로 학문적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문헌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양적 연구(86편, 41.7%)는 문헌 연구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연도별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질적 연구와의 수치상 편차를 통해서 볼 때,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경호·경비 학계에서 양적 연구를 월등히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셋째, 질적 연구(13편, 6.3%)는 전체 논문편수 중에 단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부족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학술지 논문도 미미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볼 때, 경호·경비 학계의 전반적인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의 부족함이 나타난다.

〈표 2〉 1997~2012년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경호·경비 관련 논문의 연도별 연구방법 유형

연도 \ 유형	연도															합계(비율)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문헌 연구	6	4	1	3	3	8	11	8	8	10	17	9	7	4	4	103편(50.0%)
양적 연구	0	0	1	0	2	2	2	7	8	9	13	13	8	11	10	86편(41.7%)
질적 연구	0	0	0	0	0	0	1	0	2	0	3	1	2	1	3	13편(6.3%)
기 타	0	0	0	0	0	0	1	0	0	0	0	1	0	1	1	4편(1.9%)
합 계	6	4	2	3	5	10	15	15	18	19	33	24	17	17	18	206편(100%)



한편, <표 2>의 질적 연구 비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지 논문의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들과의 결과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 경호·경비학 연구분야의 성찰과 시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경호·경비 관련 논문 총192편에 대해 주제별, 연구방법별, 연구동향별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방법별 분류에 따르면, 양적 연구는 44편(23%)이며 질적 연구는 148편(77%)이었다고 밝혔다(권정훈·이승철·방환복, 2007: 36). 그리고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인 총225편을 분석하였는데, 양적 연구는 39편(17.3%)이며 질적 연구는 186편(83.7%)이라고 제시하였다(안황권·김상진, 2008: 203). 결국 경호·경비 관련 학술지 논문 분석을 실시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모두 질적 연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문헌 연구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질적 연구의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 2. 경호·경비 관련 질적 연구의 실태

경호·경비 관련 박사학위 및 학술지 논문에서 드러난 질적 연구의 부족 현상을 통해서 볼 때, 경호·경비 학계가 질적 연구에 대해 관심이 미비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더불어 부족 현상의 이유가 질적 연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면 각성해야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호·경비 관련 질적 연구의 실태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경비 분야의 질적 연구는 형태적인 측면에 기울어 있다. 이는 박사학위 및 학술지 논문 중에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고 제시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가 명확치 않다는데 있다. 단순히 몇 분여에 걸친 단발성 면담(면접)을 심층면담으로 판단하여 질적 연구라고 주장하거나, “담당자들과 인터뷰하여 참고하였다”, “실무자 및 관련자와 심층면담 하였다”식으로 서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언급되지 않아서 면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담의 기준(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준수해야 하는데, 단지 면담(면접)을 했다는 형태만을 갖추었

다고 해서 무조건 질적 연구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질적 연구에만 면담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양적 연구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이다. 즉, 연구방법으로서 면담을 하였다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담을 통해 다양하고도 풍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연구의 본질적인 속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용환(1995: 11)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분을 단지 연구기법으로 보지 말고, 연구논리에 맞춰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경호·경비 분야의 질적 연구는 심층성을 보완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에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고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많은 인원수의 연구 참여자를 접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양적 연구의 강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해 양적 연구는 다수의 의견을 통한 현상의 계량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삼고, 질적 연구는 소수의 견해 및 경험일지라도 현상의 심도 깊은 의미를 파악한다는 연구의 목적 자체에 근원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곽영순(2009: 34-35)은 양적 연구가 어떠한 현상에 대한 다수의 생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 행동과 생각의 배경이 되는 정황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인간 행동과 생각은 그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양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심층성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실행 과정과 절차, 해석 내용과 관련된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성 역시도 턱없이 부족했다. 단지 “몇 명을 만나서 심층면담을 했다.” 또는 “비공식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등의 문구만 넣었을 뿐,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어떤 기준을 삼아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했으며, 몇 번에 걸쳐 얼마동안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심층면담을 했고, 심층면담 이후에 면담 자료의 해석은 어떻게 실행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과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경호·경비 분야는 통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질적 연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지 논문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질적 연구의 기준 설정을 통해서 볼 때, 질적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하게 된다. 권정훈·이승철·방환복(2007: 30-31)은 이윤희·김순석(2006: 275)의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서의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양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질적 연구는 문헌 연구, 역사적 연구, 법·제도적 연구 등으로 이원화하였다. 안황권·김상진(2008: 193)도 마찬가지였는데, 양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 문헌 연구, 역사연구, 관찰연구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질적 연구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방법은 모두 질적 연구로 구분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자들이 질적 연구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질적 연구의 유형을 설정한 것은 경호·경비 학계에 만연되어 있는 질적 연구에 대한 근원적인 편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공통적으로 문헌 연구가 사용되지만,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서 문헌 연구의 비중을 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부분의 문헌 연구는 어떤 현상의 본질을 다루기 위해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 그리고 현장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질적 연구로 분류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Ⅲ. 경호·경비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적용

질적 연구의 유형은 현재 수십여 가지로 분류되지만, 가장 보편적인 구분은 Creswell(1998, 2007, 2013)의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다. Creswell(1998: 47-64)은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에서 생애사(Biography),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근거연구(Grounded Stud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질적 연구의 전통적인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2007년과 2013년에는 기존의 ‘다섯 가지 전통(Five Traditions)’을 ‘다섯 가지 접근(Five Approaches)’으로 수정하며,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 질적 사례조사 연구(Case Study Research)를 질적 연구의 유형으로 다루었다(Creswell, 2007: 53-76; Creswell, 2013: 69-102). 그는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였는데, 내러티브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2000), Denzin(1989), 현상학적 연구는 Moustakas(1994), Manen(1990), 근거이론 연구는 Charmaz(2006), Strauss & Corbin(1990),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Atkinson & Delamont(2003), LeCompte & Schensul(1999), Wolcott(1994, 1999), 질적 사례조사 연구는 Stake(1995), Yin(2003)이라

는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물을 참고하였다(Creswell, 2007: 6-12). 이를 통해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적용을 위해 Creswell(1998, 2007, 2013)의 이론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와 경호·경비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적인 한두 사람의 인생이나 경험을 그 초점에 둔다. 즉,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집중하거나 그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조명해야 할 때에 선택한다. 연구결과는 연구자에 의해 선택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점이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서술은 시대별 또는 사건별이나 활동별 내용에 따라 구성된다. 내러티브 연구는 전통적으로 문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사회언어학, 교육학 등에 기원을 두며, 연구자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여 면담이나 문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Creswell, 1998: 47-49; Creswell, 2007: 54-55). 세부 종류로는 개인의 생애연구(biographical study), 자기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일대기(life history), 구술사(oral history)가 여기에 해당된다(Creswell, 2013: 72-73).

경호·경비 분야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구술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한국 내 구술사의 태동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은정(2005: 282-312)은 『구술사: 방법과 사례』에서 「최초 대테러 경호부대에서 개발된 특공무술의 진실을 찾아서」를 통해 구술사와 경호사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당시 경호부대에서 개발된 특공무술의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자 1970~1980년대 경호업무를 담당했던 경호실 소속 군부대의 장군 및 장교 등 실무자들을 면담하였고, 그 결과로 한국 최초 대테러 경호부대의 형성 비화를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호·경비 분야의 보안을 중시하는 직업윤리와 학문정립이라는 양 측면의 원칙이 상충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 연구에서 경호·경비의 접목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경호·경비 분야에서 내러티브 연구의 적용은 경호·경비와 관련지어 두드러진 경력과 행동에 주목받는 인물의 일대기 또는 관련 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특정 사건을 검증 또는 예증함으로써, 이들의 활약을 경호·경비 분야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들여놓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 경호·경비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자칫 ‘한 두 명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를 잣대로 삼아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결정하려 한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소수의 경험일지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Wolcott(조용환, 2005: 27, 재인용)는 “네 사람을 연구하면 한 사람을 연구할 때 보다 네 배의 지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며, 다수를 연구대상자로 삼아 확보하려고 하는 일반화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 그 대신에 연구의 폭보다는 깊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반화를 둘러싼 또 다른 측면으로 질적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자들이 설문지는 믿으면서, 직접 경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을 믿지 못하는 간극을 문제시 삼기도 한다. 따라서 경호·경비 학문분야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다수의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호·경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 2.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와 경호·경비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묘사함에 있어서 체험에 대한 현상 자체의 보편적인 본질을 확인하려는 데 있다. 개인의 삶을 보는 내러티브 연구에 비해,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특정한 개념 및 현상에 대한 다수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둔다. 인간의 체험을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s)’으로 여기고, 현상을 경험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무엇(what)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how) 경험했는지 있는 그대로를 포착하여 현상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Creswell, 1998: 51-52; Creswell, 2007: 57-58). 현상학적 연구는 3명에서 4명으로부터 10명에서 15명까지 구성된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공통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상의 본질(essence)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데 치중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후설(Husserl, 1859~1938)의 철학적 관점을 확장시킨 하이데거, 샤르트르, 폰피 등에 의한 철학적 기반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Creswell, 2013: 76-79).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자료로 삼아 경험을 분석하고, 경험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 맥락에 맞는 서술을 전개한다.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의 접목은 철학을 기반에 두고 있으므로 철학 분야와도 밀접한데, 이남인(2005a: 92-93)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수학적 정량적 분석 방법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 ‘체험연구(lived experience research)’를 토대로 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호·경비 분야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경호·경비 현상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특정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공통적인 경험 및 체험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밝힘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송구근·이기세(2012)의 「경호원의 조직 및 직업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들 수 있다. 공경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자신들의 직업과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공경호 종사자 중에서 대통령 경호부대 소속의 경찰 3인과 대테러전담 부대 소속의 군인 3인을 면담하여 그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낀 공통적인 경험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상학적 연구는 경호·경비의 일선 현장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현실 파악이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비롯한 실증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결국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연구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여러 명이 공유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처럼 면담기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객관화와 관련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설문지 조사 역시도 설문지가 이미 객관성 확보라는 미명을 위해 선 결정된(predetermined)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설문지 조사를 두고 현상 자체에 대한 조사보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 방식을 조사할 뿐이라는 의견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게 된다(조용환, 2005: 26). 즉, 설문지 문항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묻고 답하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버린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의 객관화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한계도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연구방법에 대한 선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지, 다양한 현상을 다루기 어려운 설문지 조사만을 더 이상 객관화의 명목으로 무조건 수궁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정리하면,

경호·경비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개인의 경험은 설문지 문항의 정해진 틀로 규정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 3.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와 경호·경비

근거이론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서술(description)의 차원을 넘어, 과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통합된 이론적인 설명(unified theoretical explanation)’이 가능한 이론을 창출하거나 발견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Creswell, 2013: 83).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 의해 형성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에 따라 일반적인 이론을 고안해내야만 한다. 근거이론 연구는 현장(field)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grounded)로 삼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화 과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확보를 위해 20~30회 또는 50~60회까지도 면담을 진행한다(Creswell, 2007: 62-63; 67). 근거이론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경험을 중시한다. 즉,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자료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현상의 구조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연구대상자의 면담내용에 대한 분석(line by line)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명(label)하고 개념들의 현상을 범주화하며, 각 범주는 하위범주로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했는지를 연계함으로써 조건·행동·결과·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난 과정 등의 구조를 도식화하는 분석절차로 이루어진다(남지원, 2008: 102-103).

경호·경비 분야에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흔치 않다. 하지만, 경호·경비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근거이론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업계의 실무와 학계의 이론 사이에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경호·경비 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식, 행동, 태도를 확인하는 현장연구(field study)를 기반으로 하는 근거이론 연구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실제로 많은 이론들이 경호·경비 현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막상 현장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거이론을 통한 이론 도출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이론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연관시킨 연구로 박현호(2009)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표준화의 질적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CPTED의 표준화 방향 및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관련된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는 특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조건들을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구조화된 이론을 귀납적으로 생성한다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거이론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려면, 시각적 모형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도식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면담은 물론이고 관찰,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 수집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효선 외(2005: 245-246)는 근거이론 연구에서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코딩을 들며,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대해 설명한다. 구조화된 이론 창출을 위해 근거이론 연구는 대부분의 질적 연구처럼 심층적인 기술(thick description)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간명성(simplicity)을 갖춘 면담의 해석 방법으로써 코딩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코딩작업을 거쳐 개념화된 자료들이 범주화되며, 각 범주들 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유형을 발견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경호·경비 분야에서 근거이론 연구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이론 도출을 유발하는데, 그 이론의 유용성이 높아서 현장과 학문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4.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와 경호·경비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장소에 있는 문화공유 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values), 행동(behaviors), 신념(beliefs), 언어(language) 등의 공통적인 패턴을 살펴보는 데 있다. 문화공유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집단의 일상생활을 장기간 동안 직접 관찰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Creswell, 2007: 68). 20세기 초기 인류학자들의 비교문화적 인류학에 기원을 두는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실재론적 문화기술지(realist ethnography)’와 ‘비판적 문화기술지(critical ethnography)’라는 두 종류로 나뉜다. ‘실재론적 문화기술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제삼자의 관점에서 작성하고, 현장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언어낸 인용문들을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그 문화를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비판적 문화기술지’는 권력, 명예, 특권, 권위에 의하여 부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권력, 불공평, 불평등, 억압, 헤게모니, 희생의 지배구조에 대항하는 실천적 동기를 가지고 실행된다(Creswell, 2013: 91, 93-94).

경호·경비 분야에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드물다. 그렇지만 문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집단 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공유하는 체제이므로,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경호·경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화를 다루어야 한다. 김선아(2008)의 「경호비서의 직업사회화 과정분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10명(남성 5명, 여성 5명)의 경호비서를 연구 참여자로 삼아 면담을 통해 경호비서의 직업사회화 과정을 준비기, 적응기, 갈등기, 성숙기로 분석하였다. 경호·경비 분야에서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적용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서 경호·경비와 관련된 집단의 행동, 가치, 신념, 언어 등의 공유하며 학습되는 경호·경비 문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 유용하다. 경호·경비 관련 특정 사건 및 현상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또는 종류별 및 지역별 경호·경비 기관의 구성원들 간 사회적 관계 및 내부적 상호작용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조용환(2005: 123)은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제한점으로 장기간 연구에 따른 연구자의 부담, 관찰과 면담에 따른 객관성 결여, 연구 산물의 수량적 제한, 연구대상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보편성 결여, 현상의 기술(description)에 치중하는 현실적 문제 해결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경호·경비 분야에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오랜 동안의 노력에 비하여 연구 성과는 적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정 지역 및 사건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되어 실천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통한 문제해결이 난제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경호·경비 분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호·경비 내부에 존재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사실과 의미 파악을 통해 문제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 5. 사례조사 연구(Case Study Research)와 경호·경비

사례조사 연구는 단일 사례 또는 다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과 분석을 목적

으로 하며,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관찰·면담·시청각·문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례조사 연구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도구적(instrumental) 단일 사례연구, 집합적(collective) 사례연구 또는 다중(multiple) 사례연구, 본질적(intrinsic) 사례연구로 나뉜다. 연구자는 하나의 관심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예증할 사례를 찾는 데, 도구적 단일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고 집합적 또는 다중 사례연구에서는 다수의 사례들을 선택한다. 본질적 사례연구는 관심주제 자체를 어떤 독특한 사례에 맞추어서 실시한다(Creswell, 2013: 99-100).

사례조사 연구자들은 하나의 사례·사건·인물과장기관과 같은 특정 현상을 검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설의 검증보다는 통찰·발견·해석에 초점을 둔다. 사례조사 연구는 특정적(particularistic), 서술적(descriptive), 발견적(heuristic), 귀납적(inductive)이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된다. 특정적(particularistic)은 사례조사 연구들이 특정한 사건 및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서술적(descriptive)은 사례조사 연구들이 현상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한 서술을 추구하고, 발견적(heuristic)은 사례조사 연구들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며, 귀납적(inductive)은 확증이나 가설보다는 새로운 관계 및 개념의 이해를 추론하게 한다(허미화 역, 1997: 30-35). 경호·경비 분야에서 김태민(2005)의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는 질적 사례조사 연구를 적용하여, 민간경호업무의 운용시스템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과 함께 체계화된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의 모델 설정을 목적으로 삼았다.

사례조사 연구의 장점에 대해 Collins와 Noblit(허미화 역, 1997: 60, 재인용)은 어떠한 정책의 결정 상황에서 사례를 들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활용도에 있다고 했다. 이는 사례를 통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 행동의 추론들이 양적 연구에 비해 덜 추상적이라, 사회적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호·경비 현장의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로서 사례조사 연구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실천성에 주목해야 한다. 경호·경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단일 사례 또는 다수 사례의 서술 및 분석과 이들 사례 간 내용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정황에 대한 논의가 개선의 여지를 지닌 정책 방안과 연결됨을 고려할 수 있다.

## IV. 결 론

경호·경비 분야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방법 선택의 다양성을 바라며, 그 일면으로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경호·경비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더욱이 질적 연구로 수행된 연구들도 의도대로 심층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통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질적 연구라고 취급할 정도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호·경비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 사례조사 연구(Case Study Research)라는 다섯 가지 질적 연구의 유형을 제시한 Creswell(1998, 2007, 2013)의 이론에 접근했다.

경호·경비 학계는 현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적절한 평가 및 보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즉, 업계와 학계가 원활히 협력하였을 때, 경호·경비 분야의 발전을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호·경비 업계는 학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신을 표명하며, 학계의 논의가 현장에 필요한 연구가 아닌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쓴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차원으로 경호·경비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의 적용은 첫째, 경호·경비 현장의 목소리를 이론화한다는 점에서 산학이 공조된 현실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둘째, 경호·경비 업계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유발하고 셋째, 경호·경비와 관련된 제반 현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며 넷째, 경호·경비 분야의 실천적인 지식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찾게 된다.

급변하는 경호·경비 분야에서 학계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의 활용을 통해 현장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호·경비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인 업계의 입장이 고려된 현장 연구(field study)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호·경비 분야의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물론 경호·경비 분야에서 무분별한 질적 연구의 수량적 활성화가 경호·경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문적 엄정성을 강조해야 함은 당연하다.

덧붙여 경호·경비 연구방법론의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질적 연구의 활성화가 경호·경비 분야에서 연구 풍토의 패러다임 변화로 연결되기를 고대한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경호·경비 관련 연구가 학계와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지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곽영순 (2009). **질적 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권정훈·이승철·방환복 (2007). 한국 경호·경비학 연구분야의 성장과 시사: 『한국경호경비학회보』 10년사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21-41.
- 김선아 (2008). **경호비서의 직업사회화 과정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 편저 (2003).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문음사.
- 김은정 (2005). 최초 대테러경호부대에서 개발된 ‘특공무술의 진실을 찾아서. **구술사: 방법과 사례**. 한국구술사연구회. 서울: 선인.
- 김태민 (2006).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지원 (2008). 조직구성원의 정책대응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5(2), 89-141. 한국조직학회.
- 박현호 (2009).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표준화의 질적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34, 159-197. 한국공인행정학회.
- 송규근·이기세(2012). 경호원의 조직 및 직업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7, 123-150. 한국경호경비학회.
- 안황권·김상진 (2008).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기고논문(1997-2007)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191-210. 한국경호경비학회.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남인 (2005a).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한국현상학회.
- \_\_\_\_\_ (2005b). 현상학과 질적 연구. 철학과 인접학문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철학과 현실**, 64, 165-180. 철학문화연구소.
- 이윤호·김순석 (2006). 한국공인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기고논문(1991-2005)을 중심으로.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5, 269-294. 한국공인행정학회.
- 이효선 외 (2005). **질적 연구: 해석과 이해**. 파주: 학현사.
- 조용환 (2005).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 (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한국교육인류학회.
- Sharan B. Merriam (1997). **질적 사례연구법**(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 (원전은 1988년 출판)

## 2. 국외문헌

John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SAGA Publications, Inc.

John W. Creswell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A Publications, Inc.

John W. Creswell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A Publications, Inc.

## 3.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http://www.riss.kr)), 2012년 11월 5일 검색.

한국경호경비학회([www.kssa96.or.kr](http://www.kssa96.or.kr)), 2012년 12월 7일 검색.

## 【Abstract】

## The Applications of Qualitative Inquiry in Security Research Methodology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exploring diversity of methodology in security research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s of qualitative inquiry. Expenses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in the field is divided,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ecurity research. Expenses compared to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on the utilization is very low, and to perform a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s focused on morphological aspects of research and a paucity of practical deep and lacks specificity. Expense of qualitative research in various fields is presented challenges to Creswell(1998, 2007, 2013) proposed five kinds of qualitative research types narrative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grounded theory research, ethnographic research, case study research, look for it in the security field. Expenses theorize that it may lead to practical changes in the security field, causing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changes in the escort industry. Expense opportunity to identify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s in security field and security research. Varied and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field and industry and the complementary role of security.

**Key words** : Narrative,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Grounded Theory, Ethnography, Case Study